

## 관악학생생활관 인터뷰

- 김대용 관장님

학내기관탐방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관악 학생생활관을 방문하여 관장님이신 김대용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6월 3일 수요일 16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관장실에서 진행했다. 약속시간에 맞춰 관장실에 도착했을 때, 관장님은 ‘메르스’ 예방대책 때문에 무척 바쁘신 상황이었다.



● ● ●  
박정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과 교수님들에게 학습과 교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관악학생생활관을 방문하여 관장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고, 가능하다면 유관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악학생생활관의 현황과 관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1975년에 개관한 관악학생생활관

은 학부생활관, 대학원생활관, 가족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00여 명의 입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연 대학원생활관의 경우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학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부임한 것은 작년 9월인데요, 약 10개월 동안 시설적인 측면은 물론 입주자들의 안전과 위생 관리, 그리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들의 인성교육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콜로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교양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콜로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연사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철학을 전해 듣는 동시에 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제37회 콜로키움은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를 모시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생활을 위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 관악구청과 함께 ‘관악구와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입주자들의 문화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도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랑을 통해 연간 네 차례씩 각종 기획전과 개인전을 유치하여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악학생생활관에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적 거주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거주환경은 그 자체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에 값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의 장은 물론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기회를 마련하고자 ‘한울제’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진행하는데, 관악학생생활관 자치회와 외국인 학생회 등이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관악학생생활관에는 소통능력과 봉사정신, 팀워크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토론 멘토링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아크로폴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웃음)

관장님, 좀 외람되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운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아니구요, 다른 무엇보다 입주자들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메르스’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방책 홍보물과 함께 소독제와 체온기 등을 각 동의 출입구에 비치하는 등 빨 빠르게 대응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학내 상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대학생활문화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내 상담 유관기관들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내에 상담실이 학교차원에서 각 단대차원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넘는 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의 수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른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학생생활관에도 입주자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주위의 다른 학생들의 눈을 의식하여 예컨대 공대나 자연대의 상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의 이슈를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경우, 학습지원부의 업무 가운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글쓰기교실의 경우 학생들의 글쓰기과제물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에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담 내용들 가운데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들의 상담 내용 가운데 학업이나 글쓰기에 대한 것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연계하여 함께 진행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향후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악학생생활관 상담실은 자체 재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전임상담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임상담사를 새로 채용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던데, (기획안을 보여주시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네요. 현재로서는 전임상담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으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곧바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이른 것 같구요, 차차 협의하면서 연계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연계 방안은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많긴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비용 문제가 관계되니까요. 차차 협의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의 이슈는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까지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안, 아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의 경우, 지금 당장 어떤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주자들 가운데 상담 내용이 학습이나 글쓰기 등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유관기관인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학생에게 소개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한다든지.

그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런 내용은 바로 가능하겠고,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이 그 첫출발이라 여기고 실무 보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 협의를 해보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오늘 나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협의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주자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장님을 뵙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관악학생생활관만 들어주시구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